더 나은 내일을 위한 투자 –

글로벌 자산배분

2026년
2월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미국 메가 빅텍 의존도 줄이고 다각화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주식 중심 자산배분 유지

주식: 빅텍보다 커머디티
반도체, 희토류, 우라늄, 구리 등

금과 함께 은도 비중확대
달러 환율 하락 여력은 제한적

박희찬 02-3774-1850 hcpark@miraeasset.com

Executive Summary

1) 정책 중심의 이동: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 2024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금리인하 기조가 약해지고 있음. 유럽과 한국은 반년 넘게 동결 기조.
- 미국 연준도 올해 추가 인하 여지 제한적. 고인플레 고금리 고착화 가능성에 중립금리 상승.
- 금리인하 여력이 줄어들면서 확장 재정정책에 대한 의존도 증가. 미국, 유로존,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됨.
- 재정정책이 더 강조되면서 채권은 한동안 어려움이 있을 전망. 주식 중심 자산배분 유지.

2) 주식 투자전략: 미국 메가 빅텍 집중 완화, 반도체 등 커머디티 긍정적

- AI가 계속 핵심 테마지만, 하이퍼스케일러스 등 핵심 빅텍들은 수익성 이슈 및 대규모 투자 부담 등으로 주가 모멘텀 약화.
- 빅텍의 대규모 투자로부터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 투자.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이고(특히 메모리), 희토류, 우라늄, 구리 등 첨단 제조 및 전력 관련 커머디티도 이에 해당.
- 미국 시장 전체적인 수익률은 빅텍 주가 모멘텀 약화로 떨어질 수 있으며, 위에 해당하는 섹터, 테마에 좀더 집중하는 전략이 좋을 전망.
- 중국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도 계속 유효.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 성장주 중심 투자 의견 유지.
- 한국 주식은 2026년 기업이익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 계속해서 반도체 중심 포트폴리오 권고.

3) 주식 외 자산배분: 금값 강세 전망 유지, 달러 약세는 제한될 것

- 금 값 강세 장기 지속 가능한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미국 중국이 공히 전략자원으로 분류한 은에 대해서도 긍정 관점.
- 최근 일본, 한국 공조 개입으로 엔화와 원화 동반 강세 있었지만, 그 효과는 오래 가지 못할 전망.

자산배분 ETF포트폴리오

	종목명	테마 분류	AUM (USDmn)	수수료 (%)	수익률 (%)			배당수익 (%)	설명
					1M	3M	1Y		
Core (주식)	Vanguard Total World Stock	전세계 주식	63,850	0.06	3.3	3.6	21.3	3.04	전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ETF. 지역별로는 미국(65.6%), 유럽(14.3%), 신흥국(10.1%) 등.
Core (인컴)	Tiger 종합채권(AA-이상) 액티브	한국 채권	707	0.05	-1.0	-3.9	-2.3	1.28	신용등급 AA- 이상 채권에 투자하는 ETF. 6.07년의 듀레이션으로 국내 전체 채권시장 평균 듀레이션과 유사.
Satel -lite	Global X China Semiconductor (신규)	중국 반도체	238	0.68	16.7	10.3	67.6	-	중국 반도체 관련 기업에 투자. 하이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10.0%), 기가디바이스(9.3%), SMIC(9.2%) 등.
	Global X China Biotech	중국 바이오	84	0.68	4.3	-2.7	61.9	-	중국 바이오테크 관련 기업에 투자. 비원메디슨(9.7%), 우시 앱텍(9.1%), 우시 바이오로직스(9.7%), 등.
	Global X INDIA Active	인도	55	0.76	-4.6	-5.9	3.9	0.70	인도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 HDFC 은행(8.6%), RELIANC GDR(5.7%), ICICI 은행(7.5%) 등.
	VanEck Rare Earth and Strategic Metals	희토류	2,821	0.58	26.4	34.7	128.4	1.33	전세계 희토류, 전략 금속 기업에 투자. 앨버말(8.6%), 북방희토(6.5%), 라이너스 레어 어스(6.4%) 등.
	Global X Uranium	우라늄	8,121	0.69	29.7	5.1	109.2	6.74	전세계 원전 및 우라늄 생산 기업에 투자. 카메코(24.2%), 오클로(8.7%), 우라늄에너지(7.0%), 넥스젠에너지(5.7%) 등.
	Global X Artificial Intelligence & Technology	AI 특화	8,134	0.68	3.0	-0.8	21.7	0.17	빅테크 위주 AI 관련 기업에 투자. 삼성전자(6.0%), 알파벳(4.4%), AMD(4.0%), TSMC(3.6%) 등.
	Global X 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인프라 개발	10,984	0.47	4.6	5.4	21.7	0.78	미국 인프라 투자 관련 기업에 투자. 산업별로는 자본재 (62.2%), 소재(22.6%), 운송(8.5%) 등.
	Global X Super Dividend REITs	고배당 리츠	224	0.58	4.9	5.6	12.8	7.66	전세계 고배당 리츠에 집중 투자. 국가별로는 미국(66.6%), 싱가포르(18.4%), 남아프리카공화국(4.9%), 홍콩(3.4%) 등.
	Aberdeen Standard Physical Gold Shares	금	9,285	0.17	24.4	36.7	95.5	-	금에 직접 투자하는 ETF.
Ref.	SPDR S&P500				4.6	-0.2	15.6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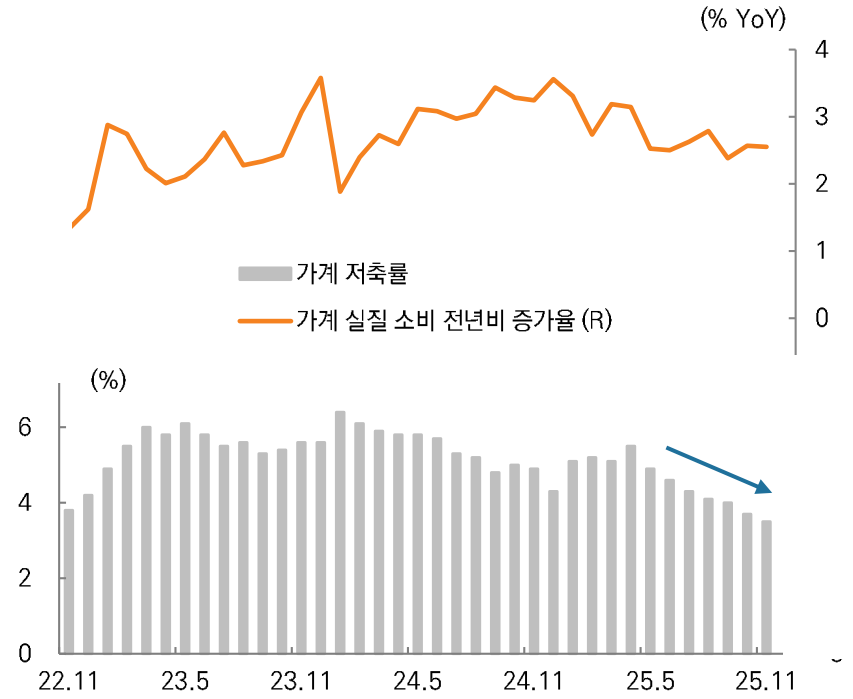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미국 시간 1월 29일 기준

미국 경제, 연 2%대 성장 추세 유지

3사분기에는 전분기비 연율 4.3% 성장률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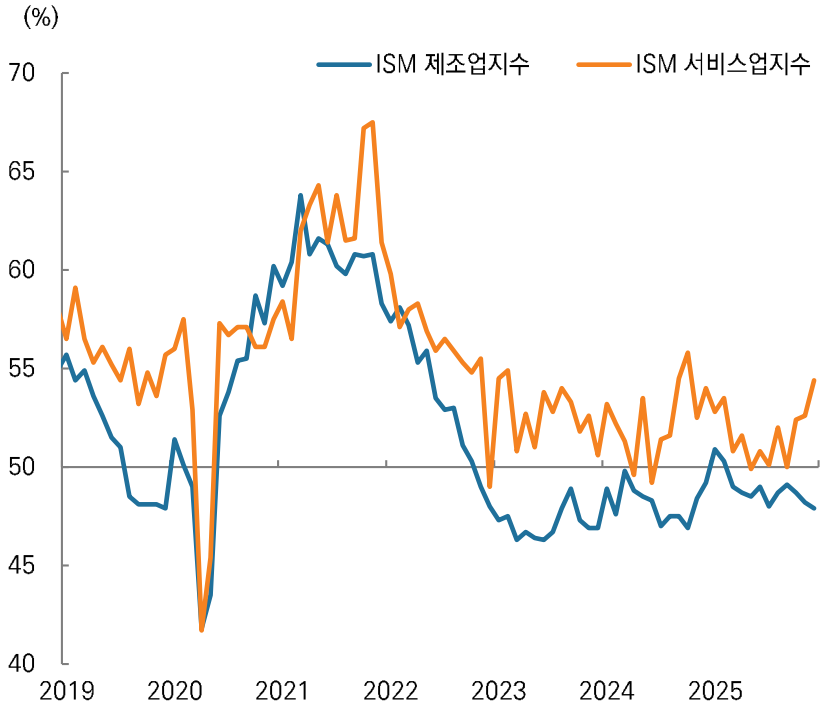
- 일자리 증가세가 약화되었고 인플레는 높게 유지되지만, 실질소비는 연 2%대 중반 수준 증가율 유지.
- 가계 저축률은 지속 하락세. 즉, 저축을 줄이면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연초 세금 환급 등, 올해 연간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각종 감세에 대한 기대감이 소득 이상의 소비를 유지시키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최근 저축률 하락세는 큰 이상 증세로 보기 어려움. 서비스업 호조로 미국 경제는 올해도 연 2% 수준 성장세 지속 예상.

미국 가계 실질 소비 안정적 증가세 유지, 가계 저축률은 하락세 지속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제조업황은 부진, 서비스업황은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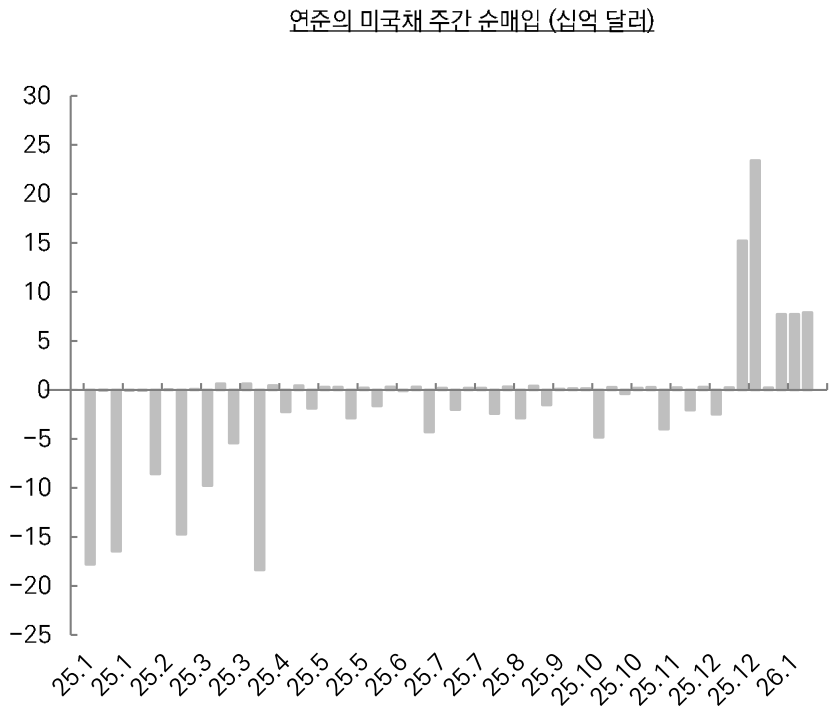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고인플레 고착화 위험

확장 재정정책에 유동성 공급도 확대 → 기대 인플레 통제 쉽지 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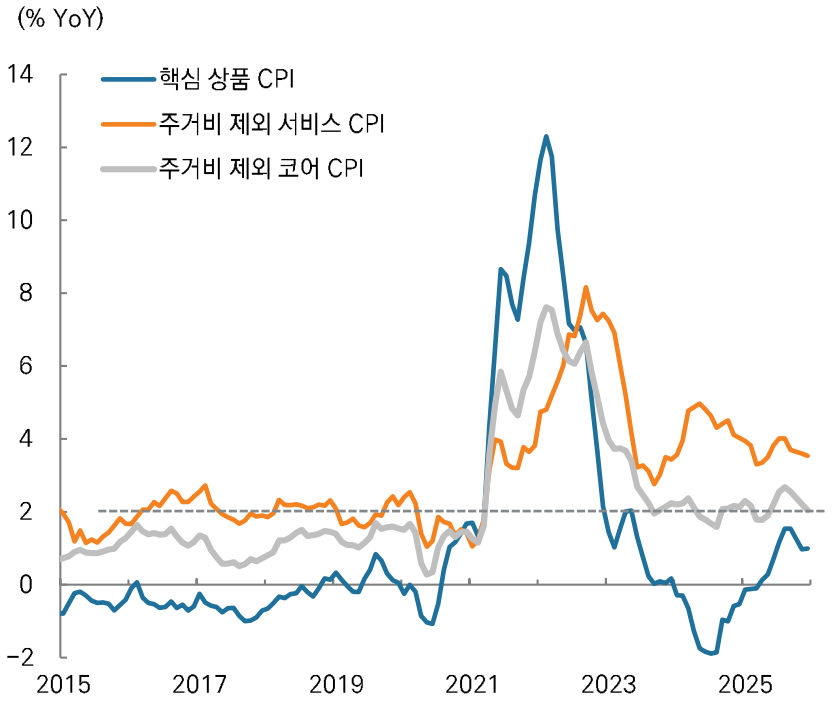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후 발표된 11~12월 인플레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음: 헤드라인 CPI는 11, 12월에 각각 전월비 0.2%, 0.3%, 코어 CPI는 각각 0.2%, 0.2% 상승.
- 하지만, 고인플레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해야 할 것. 올해는 OBBBA에 따른 확장 재정정책이 본격화 되고, 유동성 여건도 양호한 상황에서 연준의 단기채 매입 프로그램(RMP)은 사실상 QE 재개에 해당하기 때문.
- 또, 기업들이 관세 인상분을 소비자물가 인상으로 전가시키는 움직임도 인플레 상승 요인으로 잔존.

연준 양적완화 실질적 재개 상황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과거에 비해 높게 유지되는 미국 서비스 인플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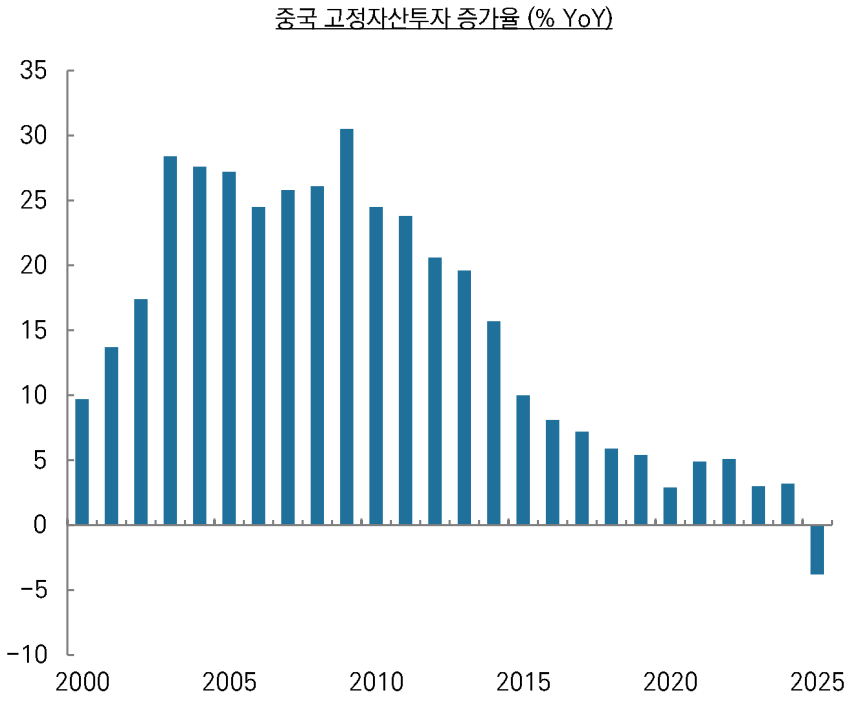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중국도 확장 재정정책 유지

투자 위축과 디플레 리스크 극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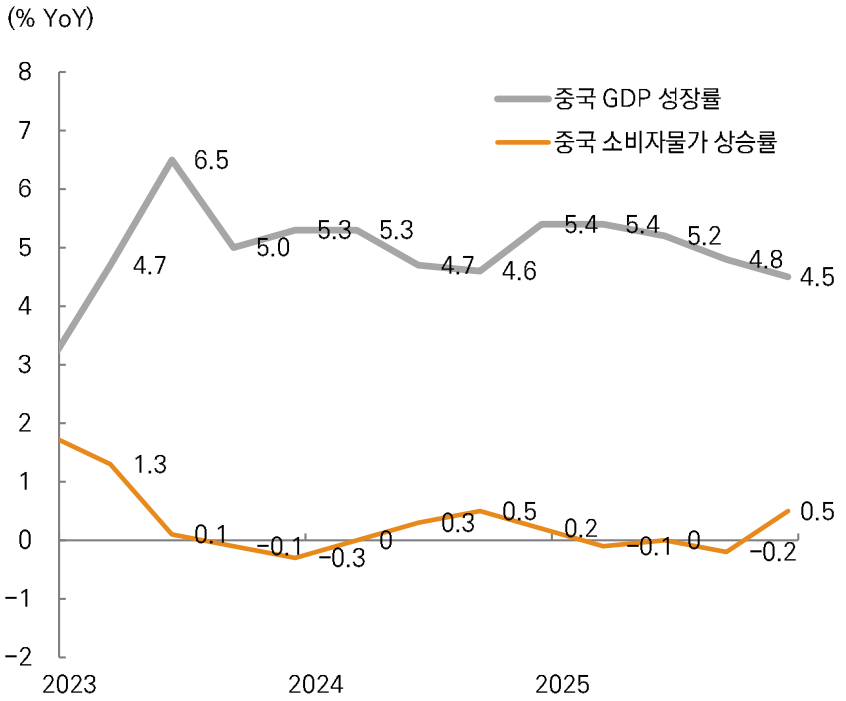
- 중국은 과잉 투자와 수요 부족으로 디플레 리스크 지속.
- 2025년 반내권 정책으로 투자 조정. 이에 따라 고정자산투자는 개방 정책 이후 처음으로 연간 감소를 기록.
- 문제는 투자 위축이 일자리 위축,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집값 하락세와 더불어 디플레 악순환 고리 형성 위험 잠재.
- 따라서, 부동산 하락 위험은 완화하고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계속될 전망.

중국 고정자산투자 감소 전환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 소비자물가는 0% 부근에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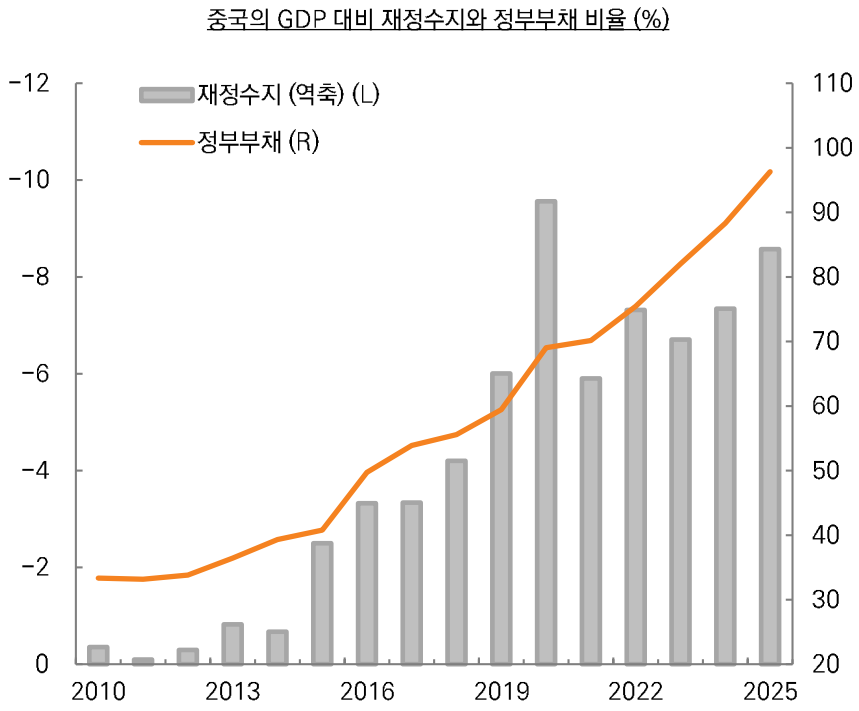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중국도 확장 재정정책 유지 (2)

금리는 이미 충분히 낮은 수준, 확장 재정정책 기조 이어갈 가능성 높음

- 중국 정부는 이미 2019년 이후로 GDP의 5%가 넘는 재정적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고, 2025년에는 동 비율이 8%로 위로 올랐음. 공급 능력 조정을 위해 투자를 제한하다 보니, 소비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
- 금리는 1%대로 이미 충분히 낮은 상황이고 부동산 부양 의지가 강하지도 않은 만큼, 앞으로도 통화 완화보다는 확장 재정정책이 내수 부양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당장은 큰 이슈가 아니나, 정부부채 비율이 GDP의 100%에 근접함에 따라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중국 대규모 재정적자 유지되면서 정부부채 비율 빠르게 상승



자료: IMF,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초저금리 상황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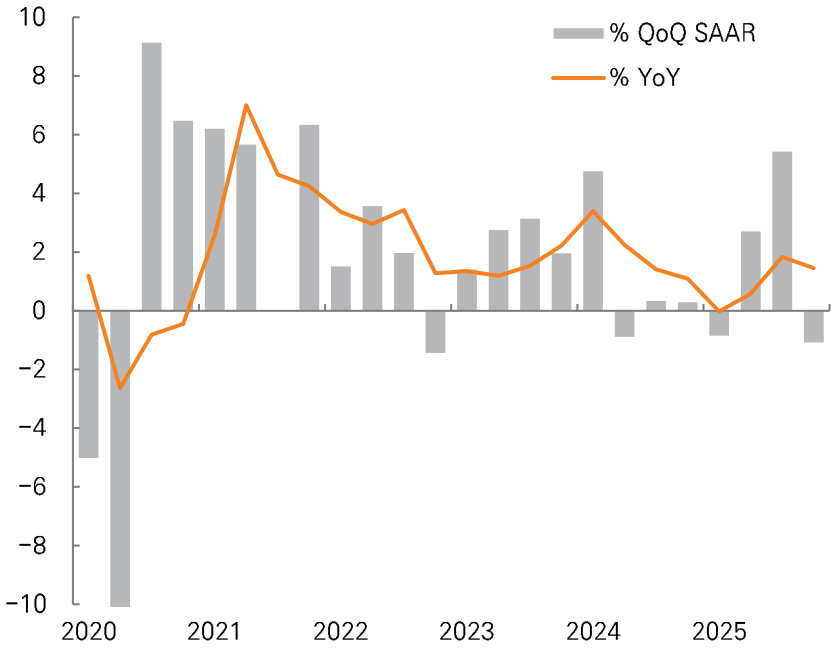
한국도 재정 확대 기조

지난 4사분기 경제 후퇴, 상반기 추경 빌미

- 2025년 3사분기에는 상반기 경제가 부진했던 상황에서(우호적 기저효과), 소비쿠폰 지급과 주가 급상승세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및 부분적 자산효과 등으로 전분기비 1.3%에 달하는 높은 GDP 성장률 달성.
- 하지만, 4사분기에는 그런 효과가 이어지지 못하고 건설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후퇴하면서 전분기비 -0.3%의 역성장세 기록.
- 이에 따라, 내수 진작을 위한 노력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음. 6월 지방선거도 예정되어 있는 점 감안하면, 소비 쿠폰 지급 등을 포함한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 보임.

한국 2025년 4사분기는 전분기비 -0.3%(연율 -1.1%)로 역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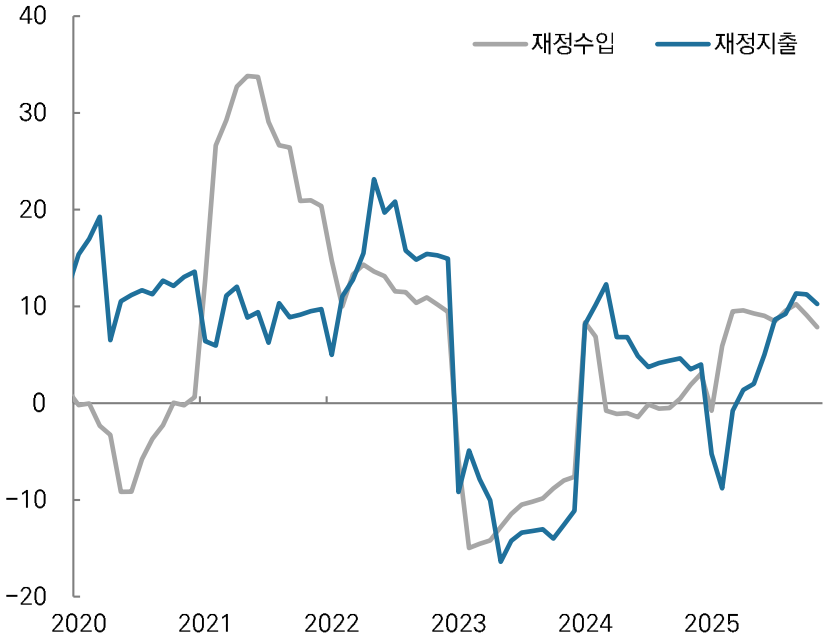
한국 GDP 성장률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정부 재정수입보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더 높아진 상황

(% YoY) 정부 재정 수입과 지출 (사회보장성기금 제외)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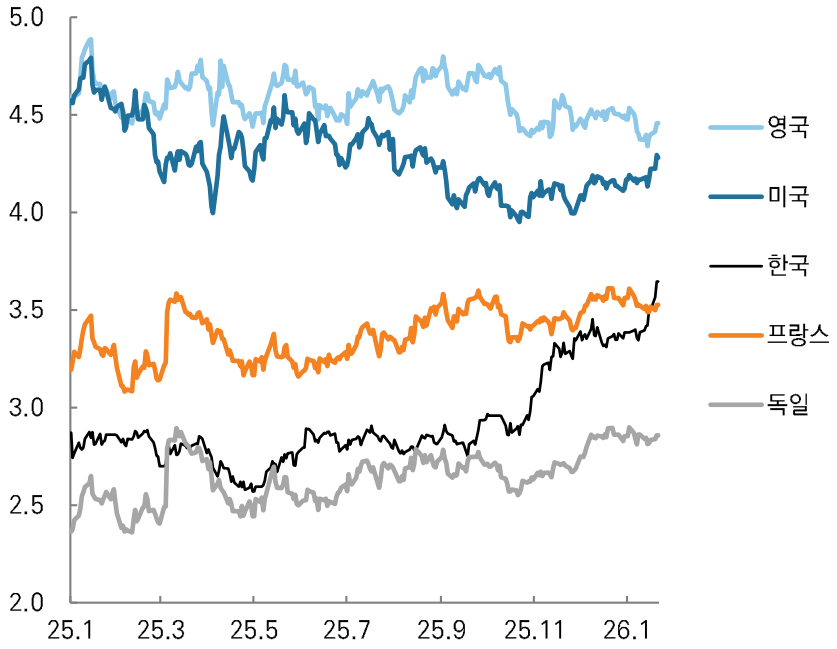
채권 약세 조정, 정책 중심 변화 반영

재정정책 중심으로 바뀌면서 금리 하락 제한

- 유로존과 한국은 2025년 하반기 이후로 금리인하가 중단되었고,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 반영하면서 국채 금리는 상승세.
- 미국은 지난 9~12월 중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지만, 중장기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상승 전환; 인플레 및 재정적자 우려 반영.
- 연준 기준금리는 2026년에도 추가 인하 전망 우세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인하 횟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음.

선진국 국채 10년물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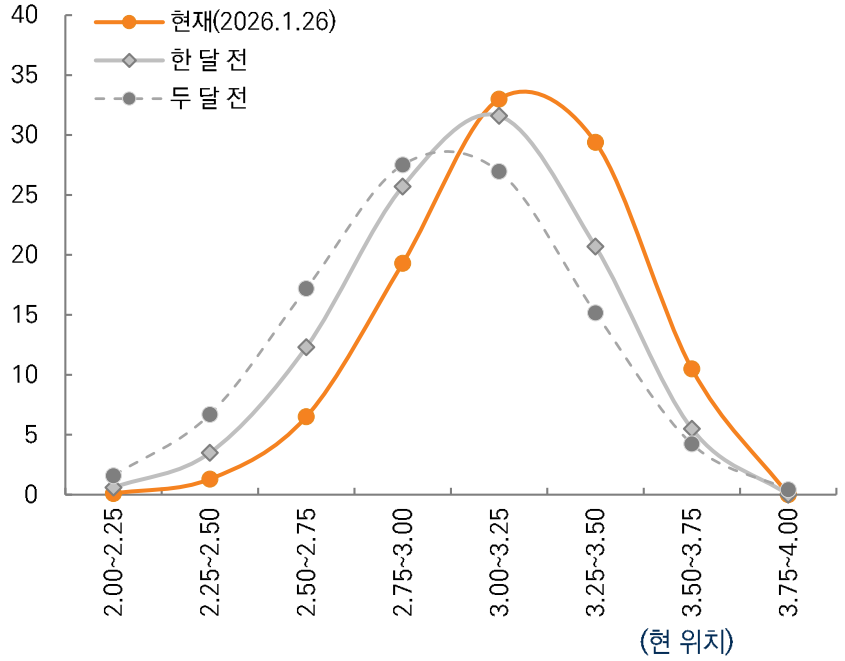
주요국 국채 10년물 금리 (%)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말 기준금리 3회 인하 기대 축소, 1회 인하 기대 상승

연준 기준금리 확률분포(%)



자료: CM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채권 약세 조정, 정책 중심 변화 반영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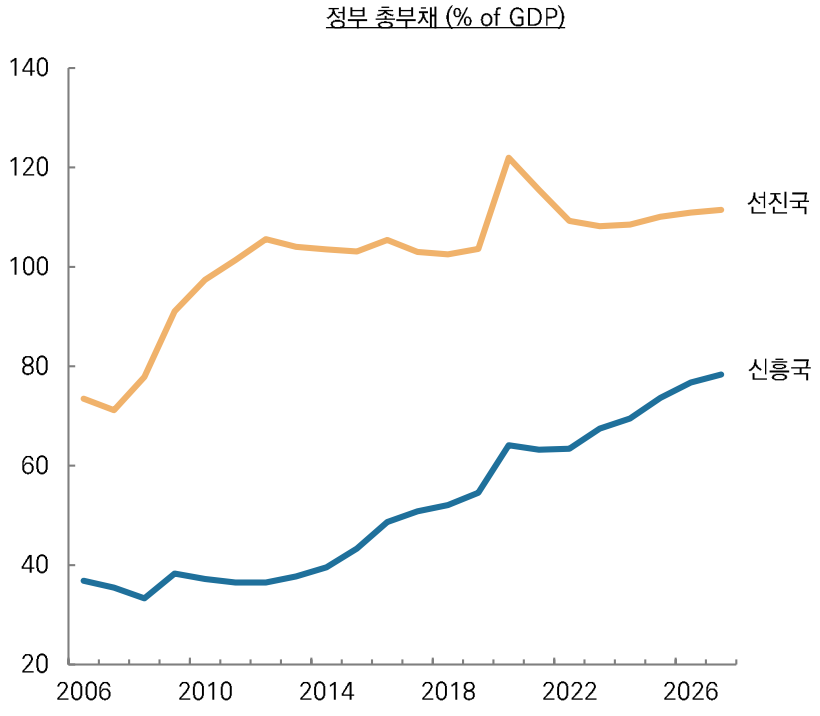
신흥국 채권도 투자 매력 높지 않아 보이나, 브라질 국채는 선호 유지

- 신흥국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국가가 다수 존재. 하지만, 신흥국도 국채 금리 추가 하락은 제한되는 양상.
- 선진국 국채 물량 확대가 신흥국 국채로의 자금 유입을 방해할 수 있음. 신흥국 정부부채 비율이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도 문제. 신흥국 국채에 대해 선진국 국채와 마찬가지로 중립 이하 의견 제시.
- 단, 브라질은 절대 고금리 매력이 있고 인플레 및 정부 재정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책들이 유지되고 있어 긍정적 투자 의견 유지. 광물 자원에 대한 시장 관심 증가로 헤알화 가치 안정성이 커진 것도 긍정적.

신흥국 국채 금리도 기준금리 인하에 반응하지 않는 상황

자료: Bloomberg, IMF,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신흥국 정부부채 비율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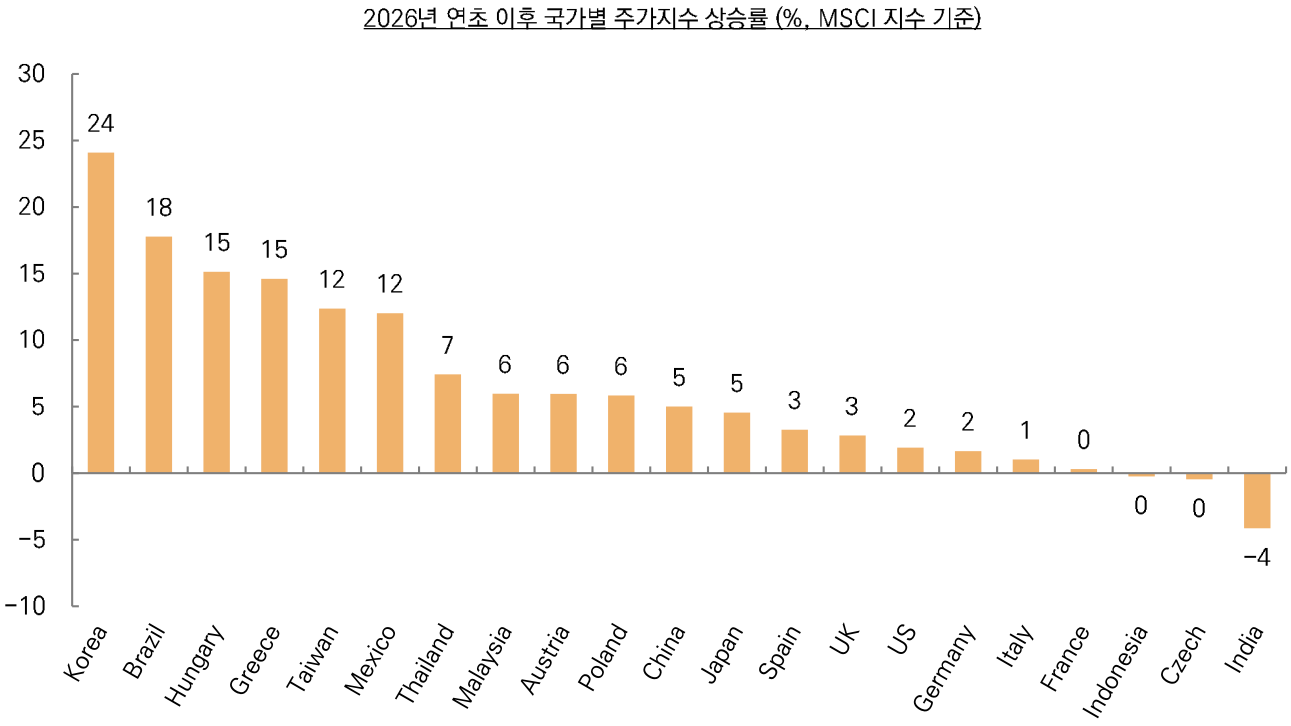
자료: IMF,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증시 강세 지속

지난해 흐름 연장: 미국보다 신흥국

- 2026년 초에도 한국의 압도적 퍼포먼스 유지.
- 브라질 헝가리 그리스 등에서도 1월 현재 15% 이상의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신흥국 전반적 강세라고 정리할 수 있음.
- 미국은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소형주는 퍼포먼스가 양호하나 대형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 지수 관점에서는 제한적 상승.

2026년 1월 국가별 주가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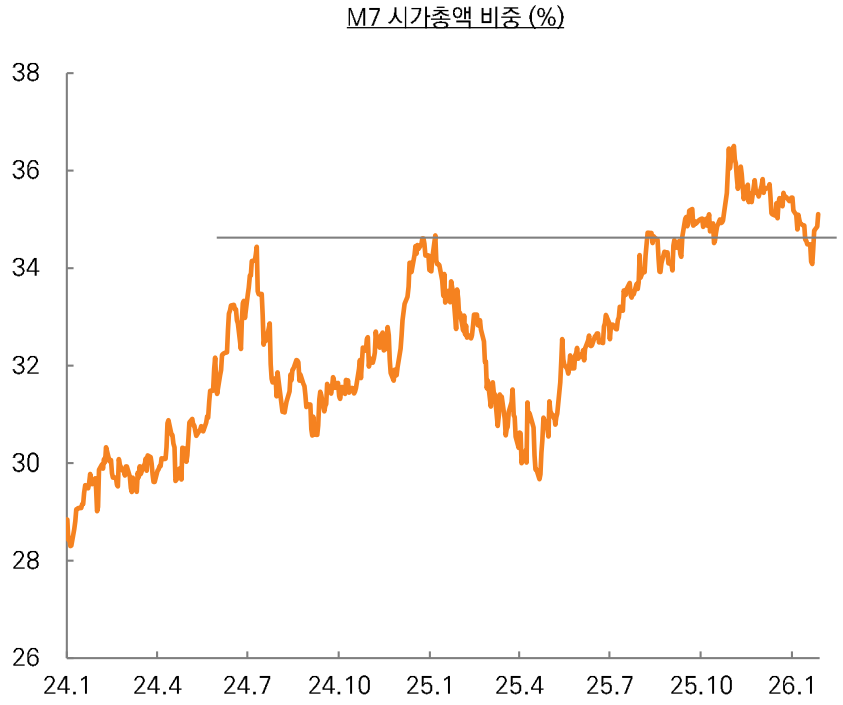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1월 27일 종가 기준.

미국 증시 상대적 부진 배경

빅텍의 주가 견인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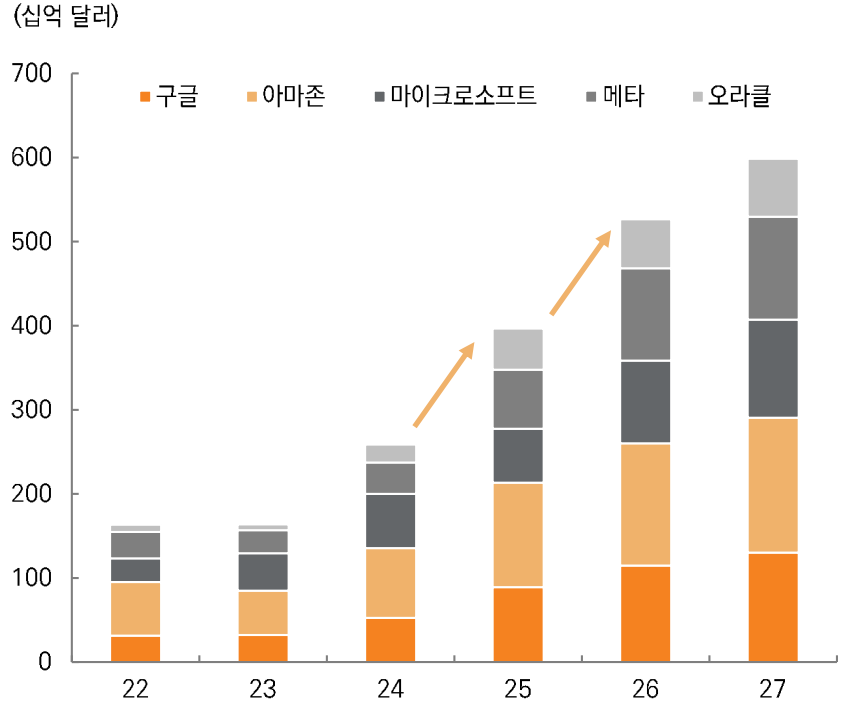
- M7 시가총액은 S&P500에서 35.1% 비중 차지(1월 27일 기준). 지난 11월 초 36.1% 고점 대비 다소 후퇴한 것.
- 막대한 자본지출이 문제. 가령, 메타 플랫폼스는 올해 연간 자본지출이 1,150억 ~1,3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제시. 이는 2025년 대비 거의 2배, 시장 예상치 1,106억 달러를 상당 폭 상회.
- 하지만, AI 수익성 이슈는 지속. 특히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상황은 더 악화. 대규모 투자는 계속되는데 수익성 이슈가 계속된다면, 주가 모멘텀이 떨어질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음.

M7 시가총액 비중 고점 통과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빅텍 자본지출 규모와 시장 예상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증시 스타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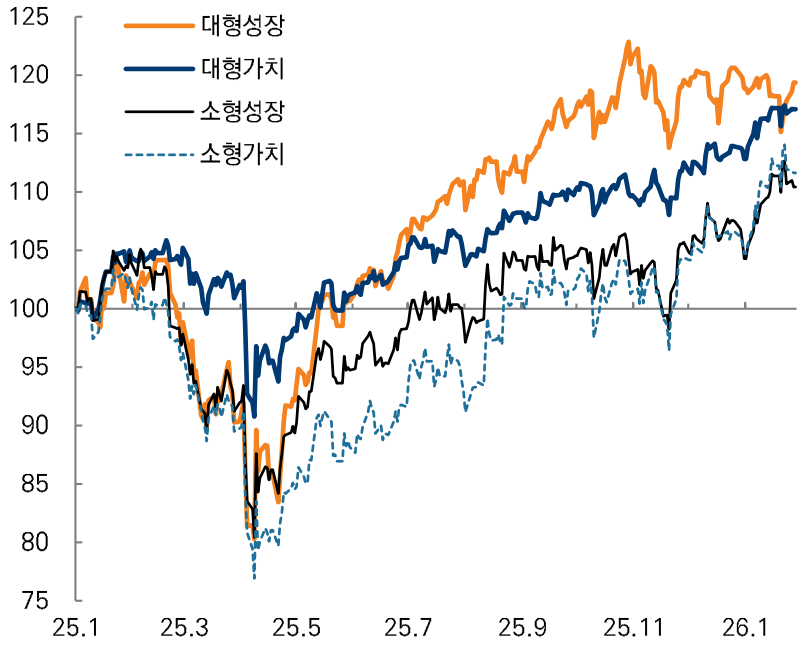
스몰캡 강세 & 전략자원, 우주 테마 강세

- 유동성 여건은 양호하고, 올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감세도 진행되는 상황.
- 이에 따라, 증시 전반적인 강세 압력은 올해도 높게 유지. 이런 상황에서 메가 빅텍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짐에 따라 중소형주로 증시 유동성이 옮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 전략자원(희토류, 우라늄 등), 우주 등의 테마가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엔비디아, 브로드컴보다는 상대적 스몰캡인 샌디스크, 마이크론 등이 메모리 공급 부족 우려와 맞물리면서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시현하는 중.

대형성장보다는 대형가치,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pt, 2025.1.1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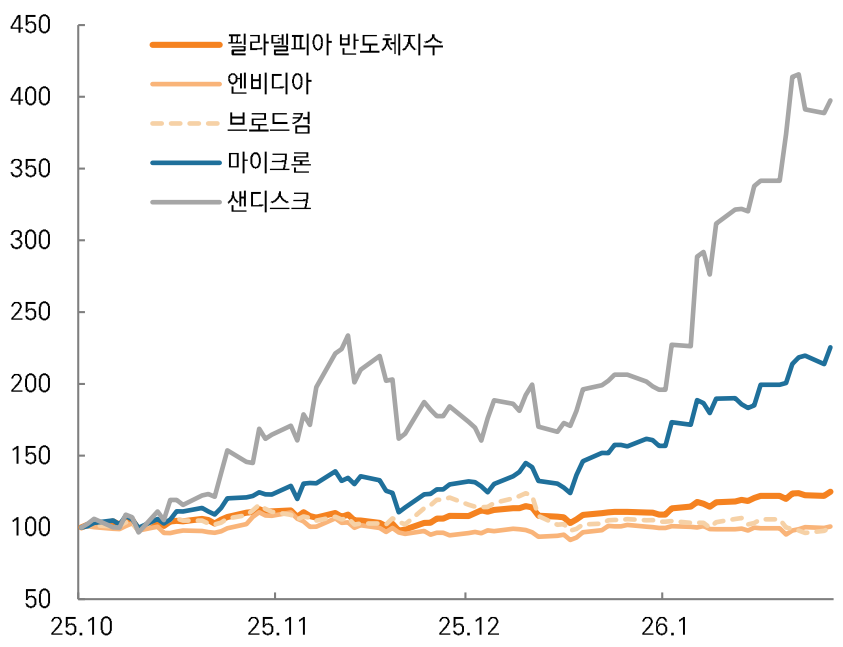
미국 스타일별 ETF 주가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메가캡보다는 상대적 스몰캡 강세

(pt, 2025.10.1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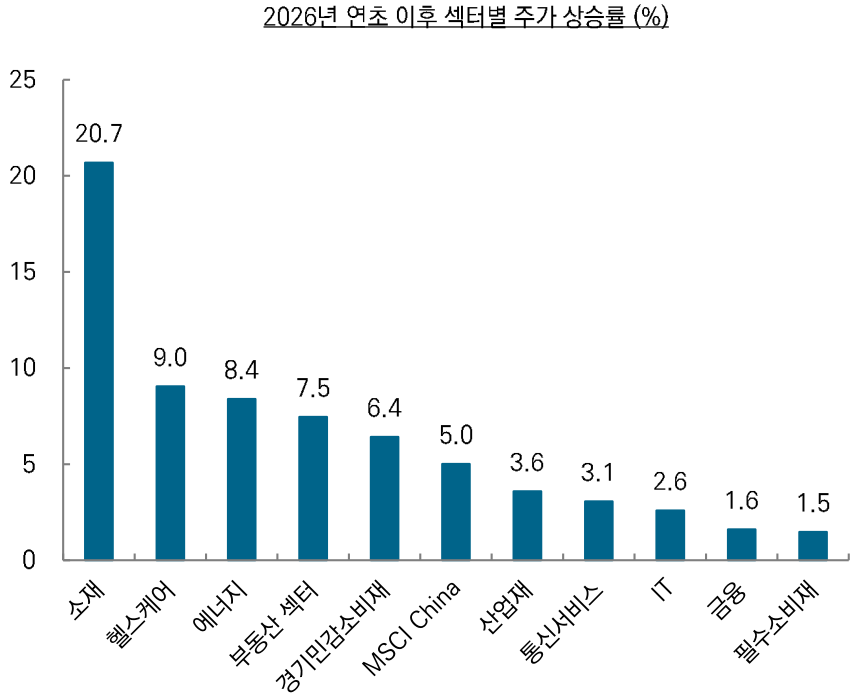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주식 비중확대 의견 유지

우호적 정책 기조와 기술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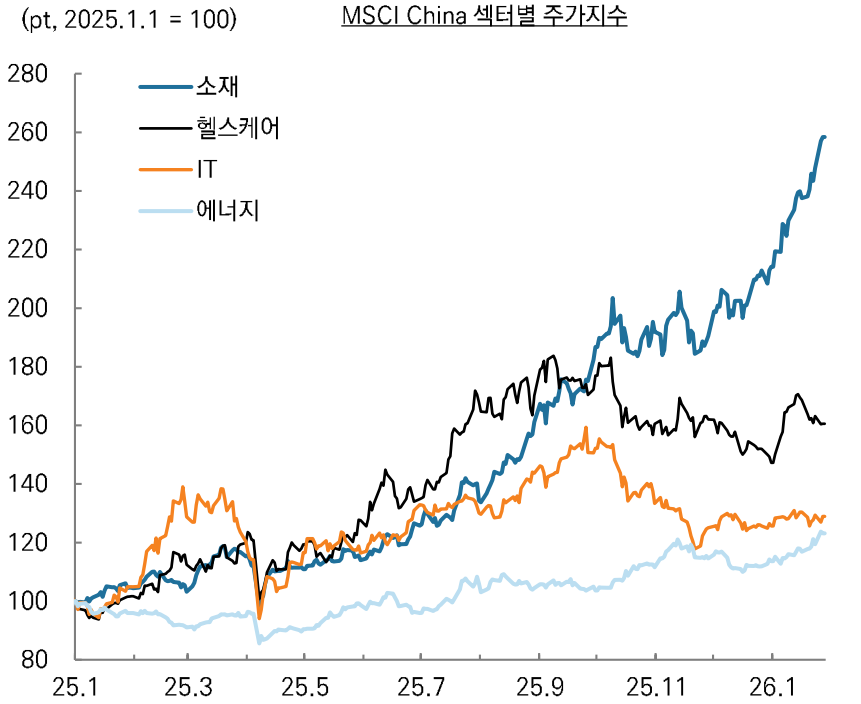
- 2026년에도 중국 증시 강세 기조 이어질 전망.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나 저금리 및 양호한 유동성 여건에 확장 재정정책이 진행되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
- 소재 섹터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강세를 지속하면서 누적 성과 측면에서 다른 섹터를 크게 압도.
- 지난해 가을 이후 부진했던 헬스케어 섹터 반등. IT는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양상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전망.

소재를 필두로 헬스케어 에너지 등 강세, 전반적 강세 기조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소재 섹터 압도적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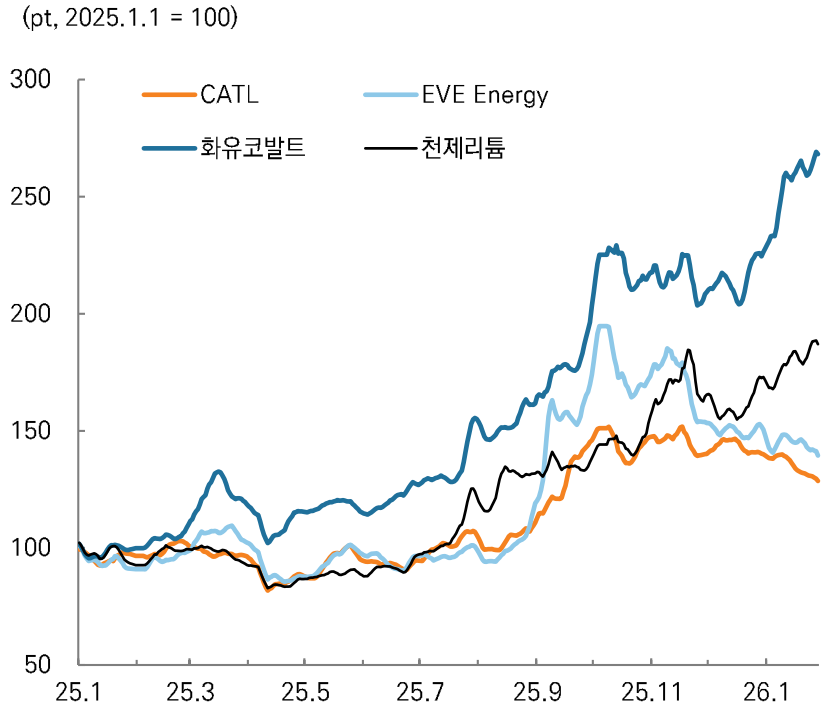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주식 비중확대 의견 유지(2)

배터리,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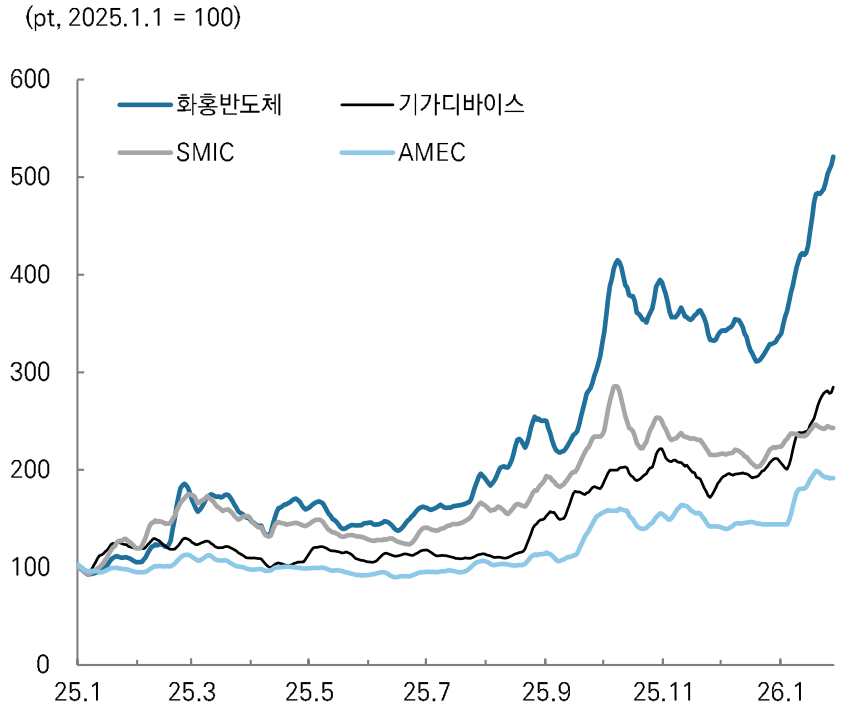
- 2차전지 섹터에서는 CATL, EVE에너지 등 셀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들 주가 강세. 미중 전략자원 확보 경쟁에 따라 광물자원 가격 강세가 진행되면서 이들 기업들에게 수혜로 작용.
- 전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과 반도체 주가 강세 흐름은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중국 파운드리 대표기업인 SMIC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막대한 투자 부담에 주가 상승이 제한되나, AI칩, 전력 반도체 등의 설계 제조 기업들은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중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 강세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반도체 섹터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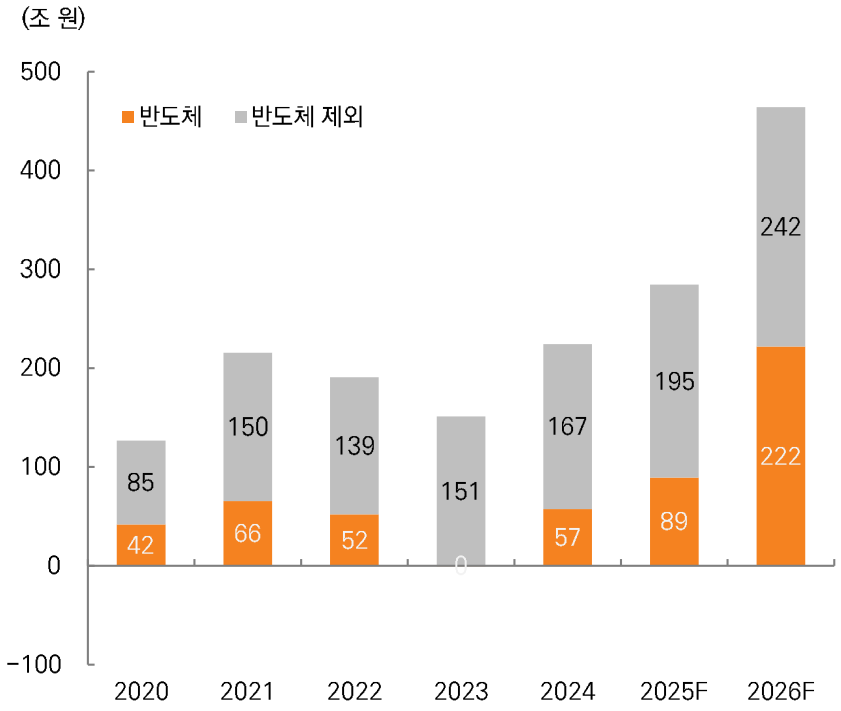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주식, 압도적 실적 기대감이 강점

2026년 이익 전망 상승세로 증시 추가 강세 여력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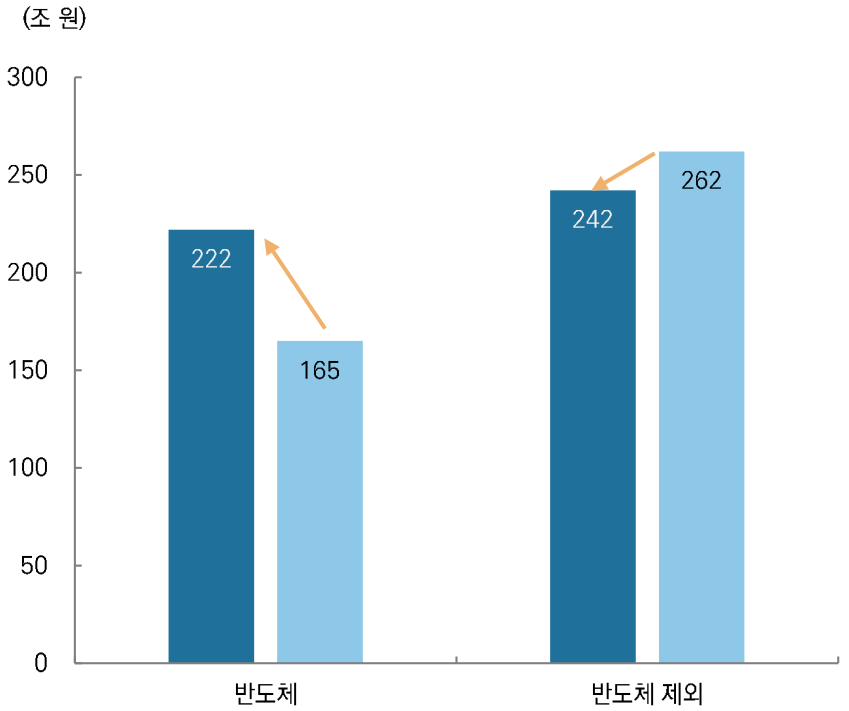
- 2025년 영업이익 약 280조 원, 2026년 영업이익은 460조 원대로 예상되고 있음.
- 2026년 이익 예상치는 한 달 전 대비 약 30조 원 상향된 것. 반도체는 55조 원 상향 됐으나, 반도체 제외 시 20조 하향.
- 증시에서는 반도체 외로 확산되는 분위기(대표적으로 자동차, 그리고 코스닥)가 있으나, 이익 모멘텀은 반도체가 더 강한 상황.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은 464조 원(25년은 284조 원)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컨센서스 변화: 한 달 전 대비 반도체 상향, 비반도체 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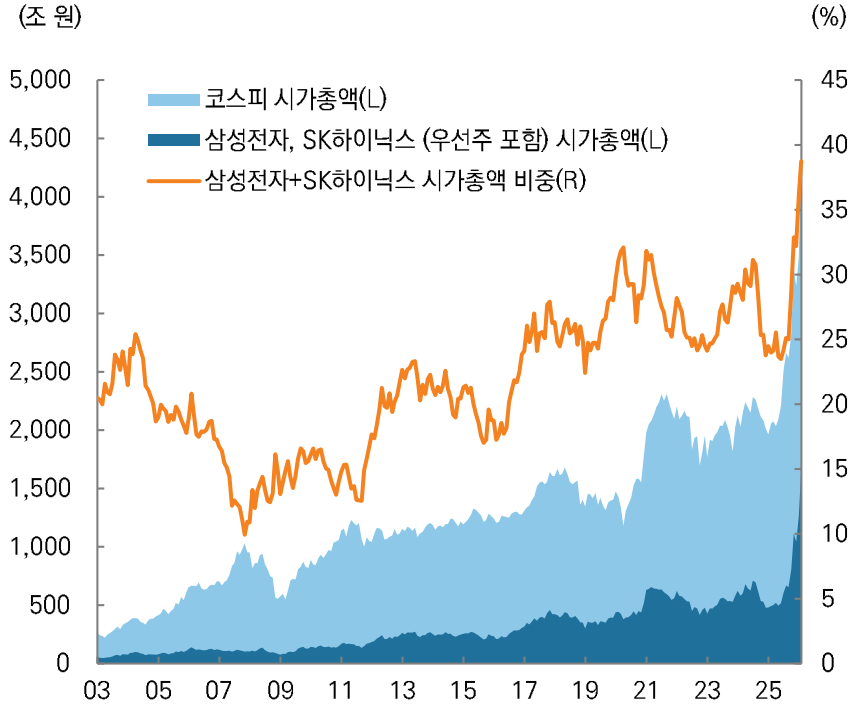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주식, 압도적 실적 기대감이 강점 (2)

반도체 중심 포트폴리오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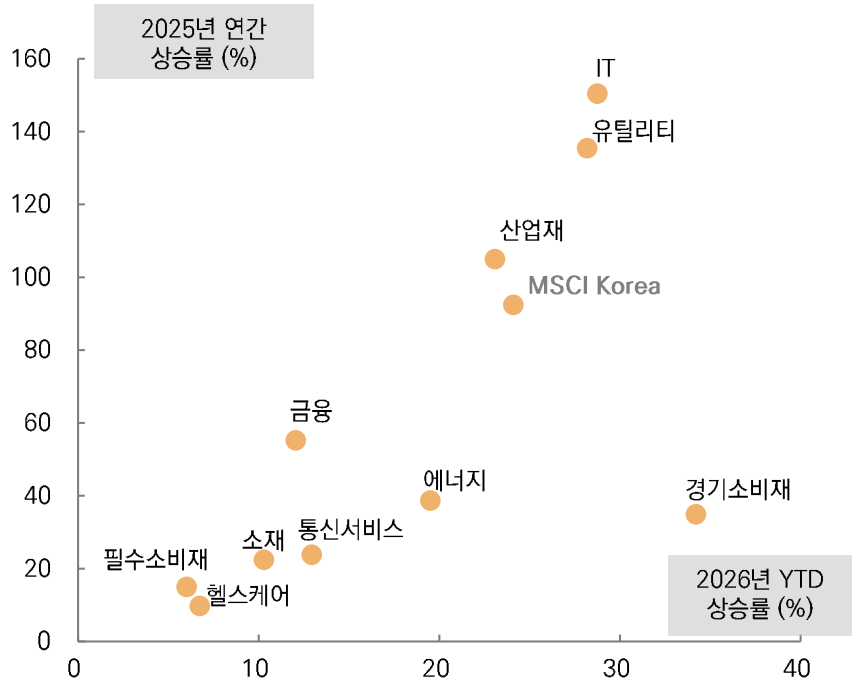
- 코스피에서 메모리 빅2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시가총액 비중도 크게 높아지면서 투자가들은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대표적으로 올해는 자동차 초강세. 현대차그룹 로보틱스 기대감이 작동. 또한, 정책 기대감에 코스닥도 근래 가파른 강세를 보임.
- 정책 모멘텀이나 미래 성장 기대감을 포트폴리오에 일부 반영할 수는 있을 것.
- 다만, 우리는 실적 성장성과 견고함에 좀더 높은 가중치를 두고, 반도체 전력기기 조선 원전 증권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축을 계속 권고.

메모리 빅2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 40%에 근접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지난해 주도 섹터가 올해도 강세 주도, 경기소비재(자동차)는 조금 예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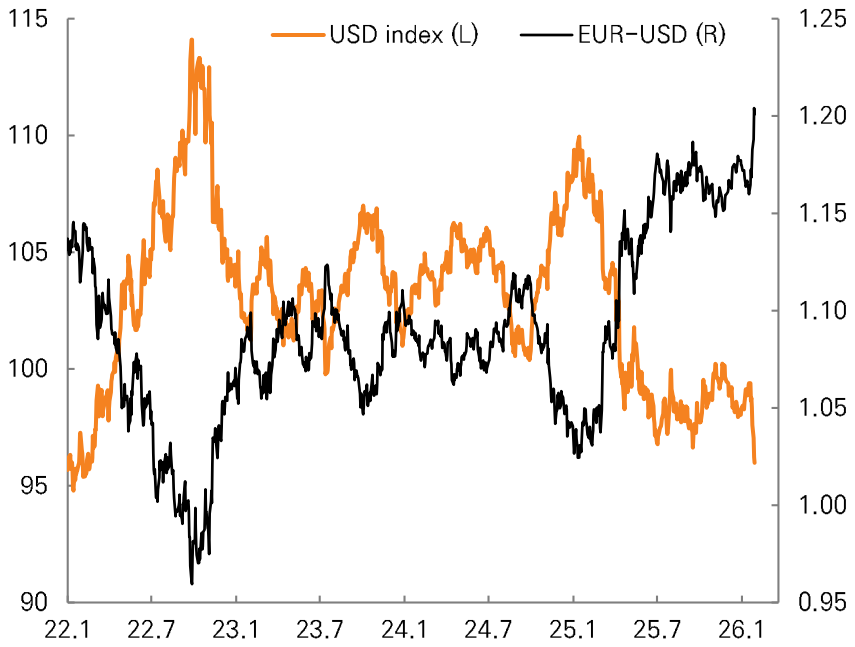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환율: 달러 가치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

연초 달러 약세 현상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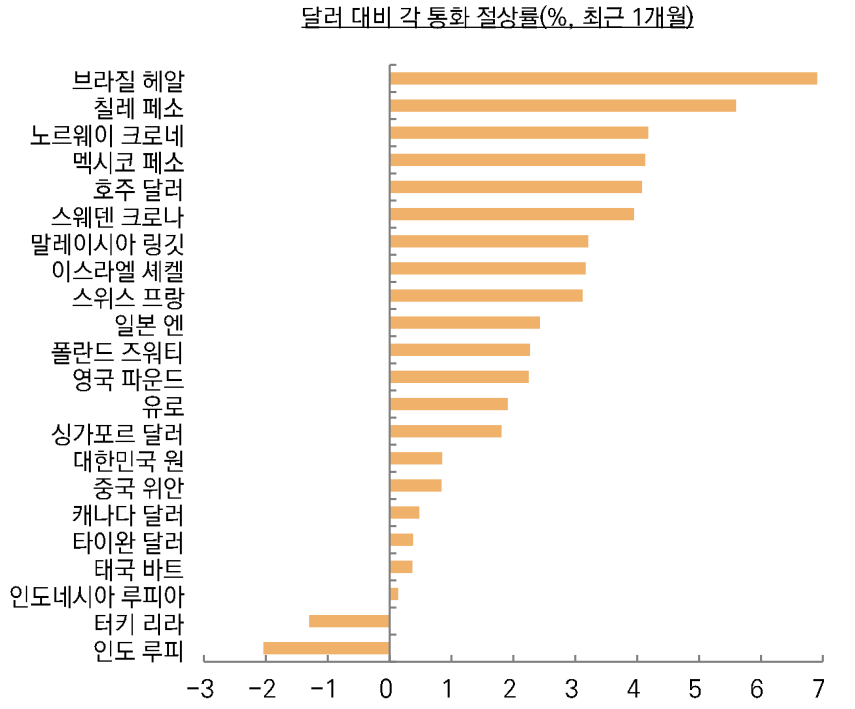
- 1월 중순 달러 환율이 160엔에 근접하면서 미-일 공조 환시 개입 정황이 감지되었고, 이후 달러 엔 환율 152엔대로 가시적 하락세.
- 엔화 가치 뿐만 아니라 유로화도 강세를 보여 1월중 저점 1.16달러 수준에서 1.20달러로 올랐고, 신흥국 또는 자원부국(호주, 브라질 등) 통화 등이 더 큰 절상폭을 기록하였음.

달러 약세, 유로화 가치 상승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근래 대부분 통화들이 달러 대비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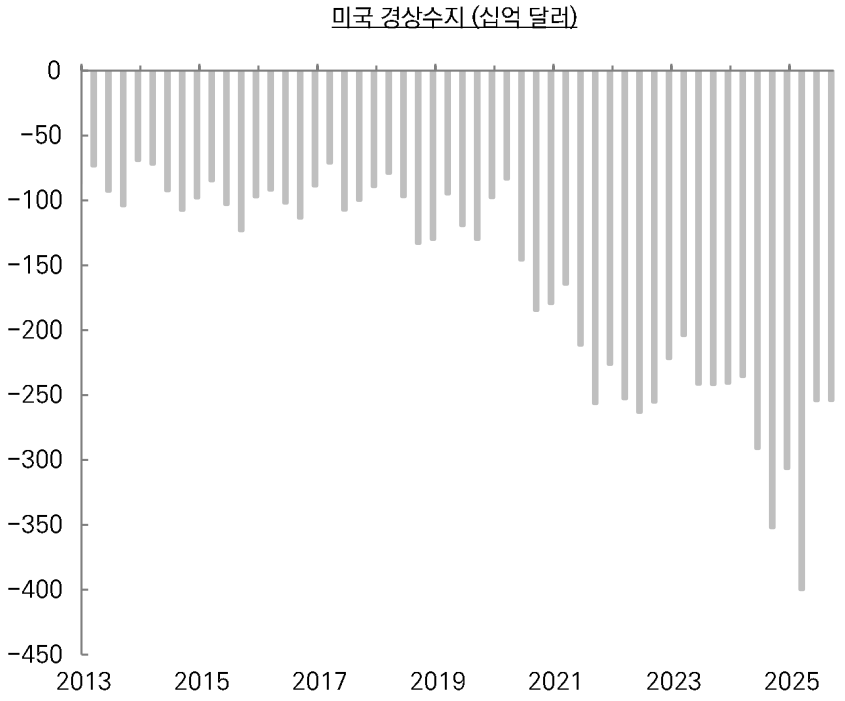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환율: 달러 가치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 (2)

미국으로 투자금 유입 견고하게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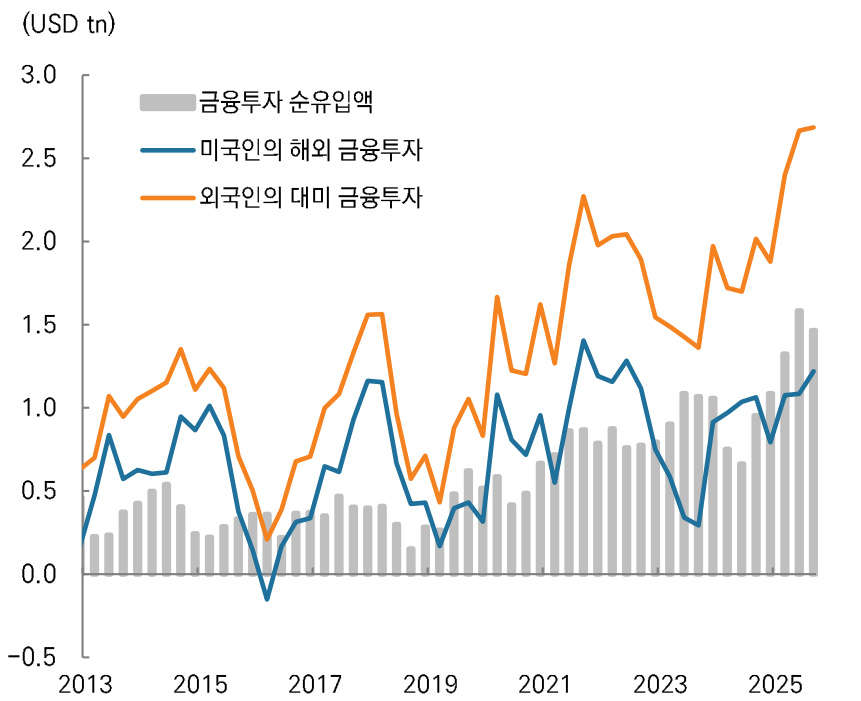
- 달러 약세가 단기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달러를 대신해서 강세를 띨 만한 통화가 마땅치 않다는 것.
- 특히, 근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유로화는 유로존 경제의 성장력 약화와 혁신 부재 등을 감안할 때, 계속 절상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미국달러 약세 압력도 제한적. 지난해 관세 인상 초기 국면에 걱정했던 것과 달리 미국은 관세 협상으로 각종 투자 유치 성과를 얻어 낸 상황.
- 미국 빅텍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선도력도 여전하고, 그런 이유 등으로 미국으로 자금 유입세도 여전함.

2025년 2~3사분기 미국 경상수지 적자 축소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025년 미국 금융투자금 순유입 규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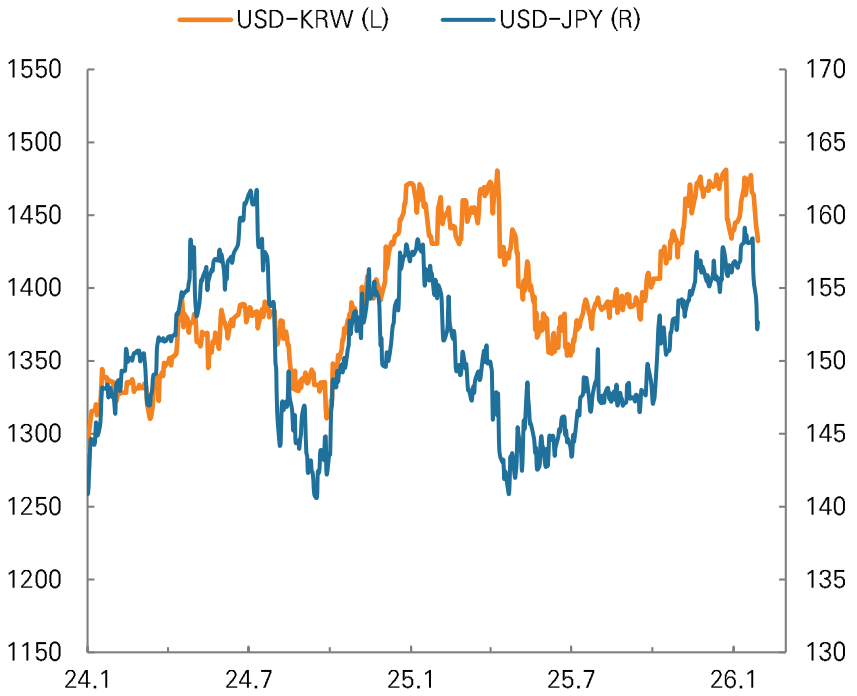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달러 원 환율 추가 하락 여력 제한적

개입 효과 지속성 의문, 엔화 약세 반전 시 원화도 뒤따를 가능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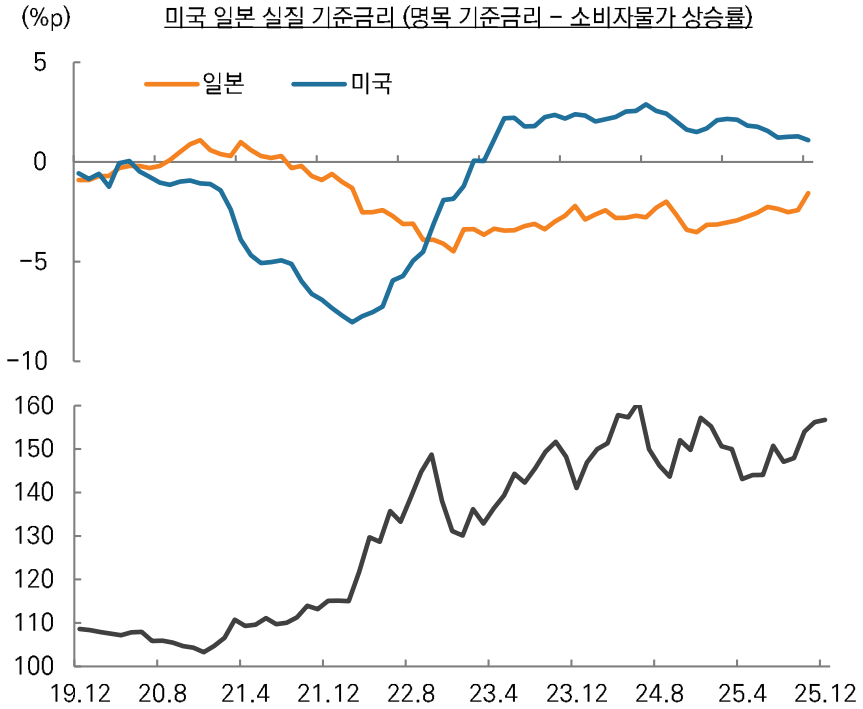
- 최근 달러 약세, 엔 강세 국면에서 달러 원 환율도 다소 큰 폭 하락. 1월 중 최고 1,480원 부근에서 1,420~30원 수준으로 낮아짐.
- 원화는 엔화에 높은 수준의 동조성을 띠고 있음. 한국 일본 동시에 환시 개입에 나서면서 양국 통화 동시에 절상되는 양상.
- 하지만, 일본 중앙은행 BOJ가 마이너스 실질 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인 점 감안할 때 엔 강세가 유지되기 쉽지 않아 보임. BOJ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 중이지만 매우 더딘 속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실질 금리 해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

엔화와 원화는 높은 수준의 동조성 유지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일본 마이너스 실질 기준금리 상황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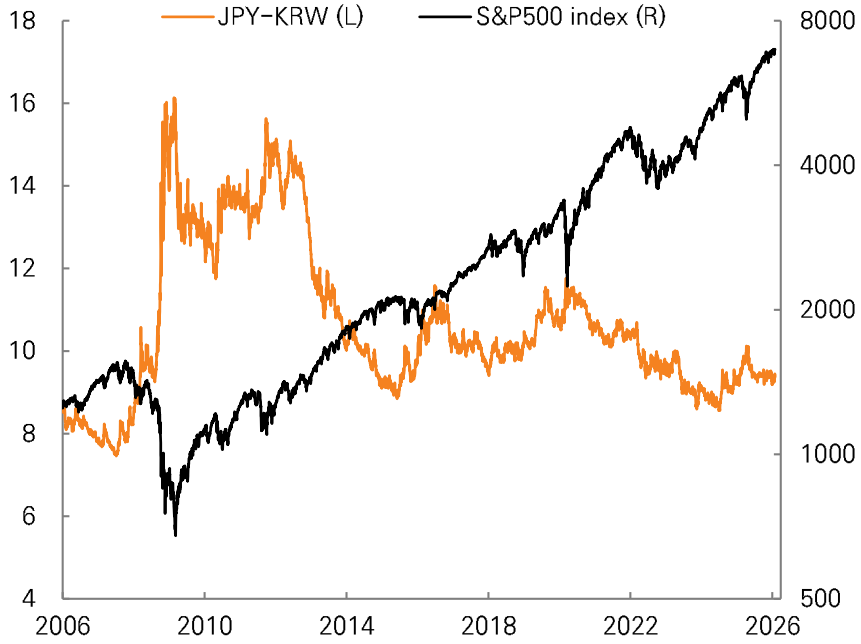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달러 원 환율 추가 하락 여력 제한적 (2)

원화가 엔화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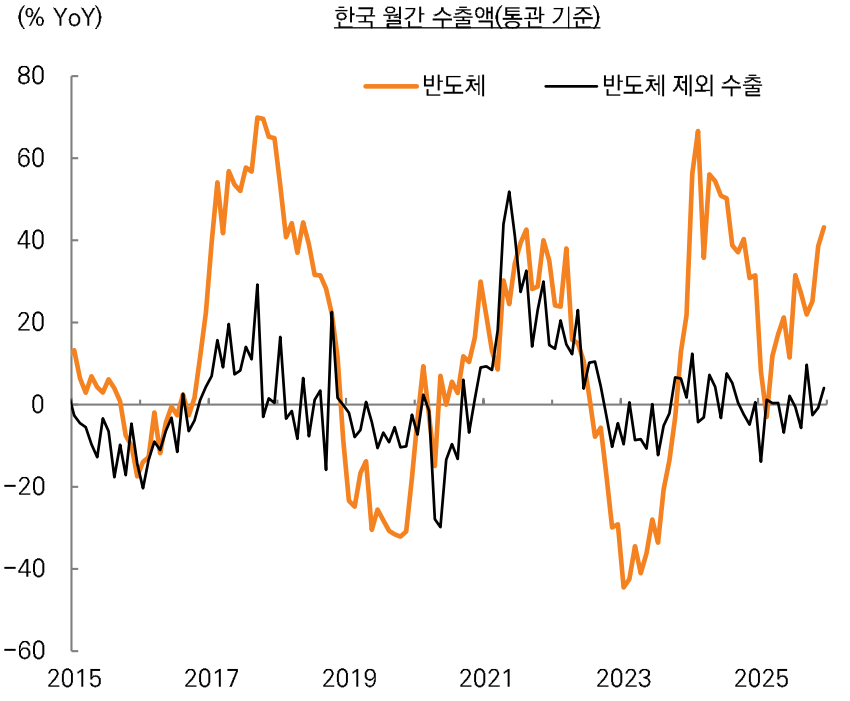
- 엔화 방향성 전망에 있어서 또 고려해야 할 요소는 위험 선호 구간에 안전 자산인 엔화가 강세로 가기 쉽지 않다는 것.
- 원화와 엔화의 높은 동조성이 유지되더라도, 위험 자산의 속성이 강한 원화는 엔화 대비 상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엔 원 환율 하락).
- 또, 반도체 수출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원화 가치에 우호적인 요소.

위험 선호(주가 상승) 구간에서는 엔화가 원화 대비 약한 경향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반도체 수출 증가율 오름세



자료: Bloomberg,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금과 함께 은도 비중확대

은에도 투자, 변동성 유의

- 은 값 급등세 지속, 금/은 가격 비율은 45~46배로 급락.
- 은 값 강세 기조 유지 예상.
- 중앙은행들, 특히 중국의 금 보유량 확대에 따라 장기적인 금 값 강세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금 값과 상당한 동조성이 있는 은 값도 강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은 값은 높은 변동성이 문제지만,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은을 전략자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하방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됐다고 판단됨.
- 금/은 가격 비율은 과거 주요 저점 레벨에 좀더 근접할 것으로 판단됨.

은 값 급등에 금/은 가격 비율 45~46배 수준으로 급락, 과거 주요 저점에 가까워지고 있음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